

전국 스키·스노보드 동호인들, 은빛 설원에서 '질주'

제12회 무주 반딧불 스키·스노보드대회 성료

전국 스키·스노보드 동호인들이 하얗게 물든 은빛 설원 위를 달렸다.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스키협회 주관하는 제12회 무주 반딧불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지난 8~9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후원했다. 9일 열린 본 경기는 스키 스노보드 등 종목별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스키 부문에 남자 조재호씨·여자 우혜빈씨가,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에 남자 김준섭씨·여자 노현진씨가 1위에 올랐다. 일반부 스키 부문 2위에 남자 김동오씨·여자 노현진씨, 3위에 남자 이경환씨·여자 이선민씨가 차지했으며,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 2위에 남자 유성민씨·여자 전예지씨, 3위에 남자 홍동기씨·여자 김선주씨가 차지했다. 이어 중고등부 여자 스키 부문에서는 손단아양이 1위, 이서정양은 2위에 올랐다. 중고등부 남자 스키 부문에서는 1위에 최현담군, 2위는 김규빈군, 3위는 이상용군이 차지했다.

중고등부 여자 스노보드 부문에서는 김현희양이 1위에 올랐다. 초등부 남자 스키 부문에서는 이재이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박이안군과 김도형군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초등부 여자 스키 부문에서는 이루하양은 1위, 김지우양은 2위, 김세영양은 3위에 올랐다.



← (사진 왼쪽부터) 제12회 무주 반딧불 스키·스노보드 대회에 참가한 김준섭씨, 노현진씨, 손단아양, 김현희양, 이재이군, 이루하양, 박선유양

초등부 남자 스노보드 부문에서는 정재우군과 정유재군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으며, 초등부 여자 스노보드 부문에서는 박선유양과 박태연양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앞서 대회 첫날인 8일에는 스키·스노보드대회 성공 개최 축하 초청음악회가 덕유산리조트 내 민선 카페테

리아 2층 홀에서 열렸다. 송미령 예원대학교 융합조형디자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음악회에서 한혜린 소프라노, 김인하 첼리스트, 지명훈 테너, 송나영 소프라노가 무대 위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김재훈기자



장수농기센터 사랑나눔동호회, 이웃돕기 성금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사랑나눔동호회(회장 강경오)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사랑나눔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나눔동호회는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심정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한 후원 활동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에도 봉사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으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동호회의 뜻이 담겼다. 사랑나눔동호회의 이러한 자발적인 나눔 활동은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2일 2층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6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백현 의장을 비롯해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과 김기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제지구협의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인한 이 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기타 위기계층 맞춤 지원, 후생기 및 후생기 물품 전달, 차메어트스 배회갑자기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2025년도 건축·주택행정 '우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도 건축·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중앙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빈집 매입 사업 추진이라는 특수 시책으로 기초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73개 지구 대상의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주택·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옥외광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주택행정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 온 남원시의 적극적인 건축주택 행정 추진 결과로 평가된다. 남원시는 효율적인 빈집 정비 위해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빈집 매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매입한 빈집을 다양한 부서의 사업과 연계·활용함으로써 노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주택 집수리, 마을 인길 및 담장 정비 재해위험 시설 보강,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 결과 놓여준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 안전을 타 지자체 보다 뛰어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관개신 사업은 요천로와 동림로 구역의 노후 간판을 건물과 업종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 노후 간판 상판 교체,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등을 추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경관을 조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출판기념회= 일시: 17일(토) 오후 12시~오후 4시(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장소: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

“안전·건강 최우선”... 남원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올해 13개 사업 운영 1028명 참여

남원시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1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남원시지회는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관리, 병영동행, 응급안전서비스 등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며 1,02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00명이 증원된 규모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남원시 권혜정 통합돌봄가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보람을 느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며,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년 넘게 지역인재 육성... 전주중산신협, 장학금 전달식

신흥중 졸업식서 새출발 응원

전주중산신협이 20여 년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리양노)은 지난 8일 신흥중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역사회 이의 환원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학사업 대상은 전주중산신협 태평분점 인근의 중앙중학교·전주초등학교·진북초등학교, 중화산지점 인근의 신흥중학교·화산초등학교·중산초등학교, 효천지점 인근의 효천초등학교 등 총 7개 학교다. 이들 학교에서 선발된 32명의 학생에게 총 5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전주중산신협의 장학사업은 2002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에는 재무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신흥중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후원을 진행했으나, 조황 경영이 안정되면



서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이후 20년 넘게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중산신협은 매년 약 200명의 학생에게 4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400여명의 학생에게 8,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보건소, 노인 의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6년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대상에 임플란트 시술도 지원 확대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로, 틀니 지원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가 해당되며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 동일 사업으로 보건소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12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보건소 건강생활과 구강보건실(063-620-7975) 및 읍면 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무료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군환 송동면장, 마을별 소통간담회 열어



남원시 송동면 진군환 면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별 현안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면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 특히 도로, 환경, 복지,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 가운데 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며, 예산이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진군환 면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애향장학회에 장학금 기부 잇따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가 지난 9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사)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회장 정현옥)에서 200만 원을, 상수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용순)에서 100만 원의 애향장학금을 기부했다.

상수면 생활개선회는 지역사회에 온정과 활기찬 열정을 전하는 여성단체로, 임실지치추계 향토음식관 운영수익금 및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모든 기금으로 애향장학회 장학금 100만 원을 지정 기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안 상서면 박영배씨,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부안군 상서면 청등마을에 거주하는 박영배씨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더저갈,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은 (주)더저갈에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주)더저갈은 특히 공병을 통해 저저갈의 깊은 품미를 유지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맛을 구현하고 있다. /진안=우태민기자